

신들 사이의 영역 구별, 신과 인간의 영역 구별: 제주 토착종교의 정결 개념에 관한 연구*

유요한**

1. 서론: 제주 토착종교의 정결과 부정 연구
2. 정결 이론: 영역의 구별과 정결 및 부정의 개념
3. 신들 사이의 영역 구별
 - 3.1. 같이 있을 수 없는 신들의 자리 가르기
 - 3.2. 같은 마을에 좌정한 신들의 위계 가르기: 돼지고기 부정
 - 3.3. 신이 행하는 정화 의례: <세화본향당본풀이>
4. 신의 영역과 인간 영역의 구별
 - 4.1. 본풀이에 나타난 구별
 - 4.2. 신의 영역에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들
 - 4.3.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정화 의례
5. 결론

1. 서론: 제주 토착종교의 정결과 부정 연구

제주도에는 토착종교 신화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토착종교 의례의 효용과 필요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토착종교 신화와 의례는 서로 연결되어 주민들의 종교적 삶의 기반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제주도의 신화와 의례는 종교의 주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¹⁾ 토착종교 의례에 참여하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27-A00176).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Mircea Eliade, *The Que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73 참조. 엘리아데는 제의와 항상 연결되어 종교적 삶을 고취시키고 정당화하는 “살아있는 신화”의 중

는 주민들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부정의 문제이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단위의 굿이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행하는 굿에 참여할 때면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 내가 2011년 3월에 조천읍 북촌리에서 열린 영등굿과 2013년 4월 구좌읍 김녕리의 잠수굿을 답사했을 때, 주민들이 부정의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영등굿과 잠수굿 모두 마을 어촌계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나는 굿이 열리기 전날 미리 어촌계장을 찾아가서 마을 제의에 참관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두 어촌계장들은 모두 내가 마지막으로 돼지고기를 먹은 것이 언제인지부터 물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자신들이 제사를 바치는 신들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굿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부정을 피하는 최소한의 ‘몸정성’을 해야만 굿을 참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북촌리의 어촌계장은 명목상 굿의 주최자인 본주(本主)이면서도, 자신은 신들을 청하여 불러들이는 초감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의 장소에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집안에 상(喪)이 있어서 “몸비림” 즉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신들이 다 제장에 들어와 좌정할 때까지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굿을 통해 신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부정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자리와 그 자리를 포함하는 우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의 산물이며, 정결과 부정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밝히는 일이다. 많은 경우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인간이 우주 내의 다양한 존재들의 영역을 구별하며 그 영역에 적합한 조건을 설정하면서 생겨난다. 특히 인간이 자신과 구별되는 다른 영역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중요하다. 인간이 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에 따라 굿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특정한 신이 다른 신과 같은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신들 사이의 위계가 결정된다. 이 논문은 제주 토착종교의 정결 개념을 주민들이 우주 내 영역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다. 정결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토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엘리야데에 따르면, 신화가 ‘참’으로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의 종교적 삶의 기반을 구성하는 문화, 즉 신화가 살아있는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신화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에는 토착종교의 신화를 참으로 받아들이며 이 신화와 연결된 제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제주 토착종교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토착종교의 현황과 외래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줄고, 「제주 토착종교와 외래종교의 충돌과 질서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개종주의 비교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2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2012), 1-36을 볼 것.

착종교를 신봉해온 제주 사람들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특히 제주 토착종교의 신화인 본풀이와 당굿 의례에서 강조되는 정결의 조건과 부정의 요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신들이 주인공인 본풀이는 신들의 위치와 신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연구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여러 본풀이에서 신들의 위치와 관계를 나타내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전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인간과 자연 현상을 주재하는 신으로 인정하는 ‘일반신’의 신화인 ‘일반본풀이’와 마을 공동체를 주관하는 ‘당신(堂神)’에 대한 신화인 ‘당신본풀이’를 검토하고, 가정에서 조상신으로 모시는 신에 대한 ‘조상신본풀이’도 참조했다. 현재 전해지는 판본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판본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정결 체계에 주목하고자 했다.²⁾ 신들이 인간들을 대할 때 요구되는 규칙도 간간히 등장한다는 점에서, 본풀이가 신들과 인간의 영역 구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굿을 비롯한 의례 절차에 요구되는 규칙에는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별하는 조건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의례와 관련된 자료들은 학자들이 정리한 보고서와 연구서 내용을 참조하는 한편, 굿을 주관하는 심방, 즉 제주 토착종교 무속인과 대면조사를 통해 수집했다.³⁾ 굿을 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사항,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 부정의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심방이 직접 진술한 면접 자료는 제주 토착종교인들이 신과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키는 정결의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 토착종교의 사례를 통해 정결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제주 종교의 정결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현용준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⁴⁾에서 그리고 문무병은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에서 굿을 할 때 지켜야 할 금기와 정화 의례를 소개하였

2) 참조한 본풀이 자료는 다음과 같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제주: 각, 2007[1980]);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2005[1976]);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서울: 보고서, 2009);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김현선 외, 「자료편」,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서울: 보고서, 2006), 211-420. 이외에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서울: 민속원, 2008)과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에 정리된 내용도 참조했다.

3) 심방들의 이름과 면접 날짜는 다음과 같다. 강대원 심방, 2010년 7월 1일; 김윤수, 이용옥, 김영철 심방, 2011년 4월 14일; 정태진, 고순안, 김연희 심방, 2011년 6월 8일; 서순실, 정공철 심방, 2011년 10월 7일.

4)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2002).

다. 이 책들에는 제주 토착종교의 정결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나도 이 논문을 쓰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정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편』⁵⁾에는 굿을 하기 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터뷰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과의 매우 단편적인 면접을 정리한 것에 그치고 있어, 제주 종교의 정결 개념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혜숙·이경희는 「산욕기 여성의 경험: 제주지역을 중심으로」⁶⁾에서 제주도의 산욕기 여성들의 경험과 관련된 돼지고기 부정을 언급한 바 있으며, 김진영은 「제주도 당본풀이에 나타난 ‘뚫고기 부정’의 의미와 기능」⁷⁾에서 제주도 당본풀이에 나타나 있는 돼지고기 부정을 여성의 임신금기와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이 두 논문은 제주도에서의 돼지고기 부정을 여성의 경험과 관련시켜서 서술하고 있지만 자료의 기술 수준에 그칠 뿐 심도 있는 분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강정식은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⁸⁾에서 제주도의 돼지고기 부정과 관련된 본풀이와 굿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돼지고기 부정을 기준으로 본향당신과 다른 직능의 신들, 본향당신과 관련된 의례와 다른 직능의 신들 관련 의례가 구별된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강정식은 돼지고기 부정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는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제주도 정결 체계 전체의 맥락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제주 토착종교의 정결 개념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제주도의 정결 체계를 밝히고 그 의미와 실제 의례에서의 적용을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화를 검토하고 의례 전문인들을 면접하는 두 방향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제주 토착종교의 정결 체계의 주요한 특징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결과 부정을 연구해온 주요 이론들을 점검하고, 학문적으로 유용하고 효율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김동섭 외,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6) 신혜숙·이경희, 「산욕기 여성의 경험: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권 2호 (여성건강간호학회, 1998), 271~285.

7) 김진영, 「제주도 당본풀이에 나타난 ‘뚫고기 부정’의 의미와 기능」, 『종교학연구』 26호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7), 149~166.

8)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한국구비문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12), 33~59.

2. 정결 이론: 영역의 구별과 정결 및 부정의 개념

지금은 이미 고전이 된 책 『정결과 위험(*Purity and Danger*)』에서,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정결과 부정을 사회적인 자리 정하기의 문제로 설명하는 사회 기능론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녀는 정결보다 부정에 먼저 주목하여, 부정을 “제 자리에서 벗어난 것(matter out of place)”으로 정의했다. 더글라스에게 부정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제거되어야 하는 무질서 또는 위험 요인이다.⁹⁾ 그녀는 정결과 부정이 특정한 사회 내에서 만들어지며, 사회가 정하는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요컨대, 더글라스가 말하는 부정은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적 우주 내의 무질서를 표상한다.¹⁰⁾ 더글라스의 정결 이론은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정결 관련 연구에 계속 반복해서 논의될 정도로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더글라스가 정결을 ‘자리’의 문제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국한시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종교 현상을 비종교적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면 복잡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경험을 단순화하고, 상대화하고, 파괴하기에 이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¹¹⁾ 사회적 질서의 설정과 유지를 위한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연구는 신자들의 종교적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다른 학문 분야와 구별되는 종교학적 관점에 대해 논했던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종교학은 신자들의 행위와 사고가 지닌 종교적 의미에 주목한다.¹²⁾ 정결 개념의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종교의 요소들 중

9)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New York: Routledge, 2001 [1966]), 41.

10) Douglas, *Purity and Danger*, 5-6, 70-73을 볼 것.

11) Eliade, *The Quest*, 4.

12) 신자들의 행위와 사고가 지닌 종교적 의미를 강조하는 견해를 보려면, W. Brede Kristensen, *The Meaning of Religion*, trans. by John B. Carman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0), 2-14; Wilfred Cantwell Smith,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1962]), 1-14, “The Study of Religion and the Study of the Bible,” *JAAR* 39 (1971): 131-140; Mircea Eliade, *Ordeal by Labyrinth: Conversations with Claude-Henri Rocquet*, trans. by Derek Colt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142; William E. Paden, *Religious Worlds: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88), 178-179 n. 7; Kimberley C. Patton, *Religion of the Gods: Ritual, Paradox, and Reflexiv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61 등이 있다. 패튼은 또한 Kimberley C. Patton, *The Sea Can Wash Away All Evils* (New York: Columbia

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신과 자신을 포함하는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후기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강조하는 세계관을 가진 종교가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중시한 반면 죽음의 극복과 죽음 이후의 이상적인 세상을 주장하는 세계관을 가진 종교는 정결의 문제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¹³⁾ 스미스의 설명을 달리 해석하자면, 정결의 개념은 신자들이 우주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사회적인 자리 정하기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이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사회적 질서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결을 사회의 질서와 관련된 개념으로 규정하면 사람들이 세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중 일부에만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 셈이다.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인간이 자신을 비롯한 세상의 주요한 존재들의 영역을 구별하기 때문에 생겨난다.¹⁴⁾ 여러 학자들이 정결을 인간의 우주론 내 영역의 문제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윌리엄 페이든(William Paden)은 인간은 영역을 구별하기 마련이며, 정결은 영역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한다고 설명한다.¹⁵⁾ 여기서 ‘영역’은 종교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의식 속에 설정되며, 특정한 존재의 지위를 규정하는 조건이 인정되는 상징적인 공간을 가리킨다.¹⁶⁾ 영역의 구별은 인간의 인식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회적 또는 물리적인 특정한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더글라스의 주장처럼 정결이 요구되는 자리 또는 영역이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표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우주론 내의 각 영역들이 물리적인 장소와의 관계의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으며, 영역들 사이의 구별 역시 반드시 특정한 장소의 구별에 의해

University Press, 2007), 15에서 더글라스의 이론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만 보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13)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121-125, 132-134.

14) 나는 이전에도 정결의 개념을 영역 구별의 문제로 설명한 바 있다. Yohan Yoo, “A Theory of P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igion” (Ph.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2005); 유요한, 「상징적인 깨끗함과 더러움」, 『종교적 인간, 상징적 인간』 (서울: 이학사, 2009), 203-221을 참조할 것.

15) Paden, *Religious Worlds*, 144. 페이든에 따르면, “어른과 아이, 여성과 남성, 내부인과 외부인, 상급자와 하급자, 한 카스트와 다른 카스트 사이의 경계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역(realm)의 구분은 모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행위의 일부이다... 정결은 모든 존재의 영역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16) ‘영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A Theory of Purity,” 27-29를 볼 것.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역의 구별이 신자들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은 제주 토착종교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서순실 심방은 영역의 구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방이 굿을 할 때 ‘백지 한 장 갈름’ 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과 차 안이 차 문 하나로 가리잖아요. 이 문 하나 사이가 부정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돛제 할 때도, 김녕의 돛제 할 때도 이렇게 백지 한 장 놓고 가림을 해요, 그게 신에게는 백지 한 장을 가림으로써 신에게 우리가 부정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백 보 바깥’ 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 보 안에는 부정이고, 백 보 바깥에는 부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창문 하나가 부정을 가리는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요.¹⁷⁾

‘백 보 바깥’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주 토착종교는 부정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범위까지 미치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백지 한 장 갈름’으로 상징적인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면 정결의 조건이 요구되는 범위, 즉 영역이 정해진다. 백지로 발을 쳐서 눈에 보이게 신의 영역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이 설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감제가 끝나고 신이 자리에 앉게 되면 눈에 보이는 표시가 없어도 신의 영역이 구별된 것으로 여긴다. 앞에서 언급한 북촌리 어촌계장은 신의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정을 입어서 처음에는 굿이 행해지는 장소에 갈 수 없었지만 초감제가 끝난 후에는 참여할 수 있었다. 심방이 초감제에서 신들을 다 불러와서 자리에 앉혀놓음으로써 영역을 구별했기 때문에 어촌계장의 부정이 신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 것이다.

영역의 개념을 적용하여 정의하면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 정결(purity)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 즉 우주를 해석할 때 설정하는 영역의 필수적인 조건 또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서 요구되는 조건이나 속성, 다시 말해 그 영역 내에 적합하고 당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정결 체계(purity system)는 인간이 상징하는 여러 영역들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규칙들의 체계이다. 부정(impurity)은 한 영역의 조건이 공존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의 영향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를 가리킨다. 정결과 부정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정결하더라도 신의 영역에서는 부정할 수 있으며, 자기 집에서는 정결한 상태이더라도 신당에 가려면 먼저 부정을 씻도록 요구된다. 패튼은 부정의 제거가 “정상적이고 정결한 집단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¹⁸⁾ 부정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영역, 즉 제 자리

17) 서순실 심방은 ‘갈름’이라는 말을 ‘영역 가르기’와 ‘이 영역의 것을 가리다’의 두 의미로 사용했다.

에 적합하지 않은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신의 세계, 그리고 죽음의 세계가 모두 포함된 우주 내에서 모든 존재들이 같은 자리에 공존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문화들은 상징적 정결 체계를 통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그리고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을 구별해왔다.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인간의 영역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며, 인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신을 만나서는 안 된다. 인간의 영역이 신의 영역과 구별될 뿐 아니라, 같은 자리에 공존할 수 없는 인간들 사이의 구별도 종종 정결 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결 체계를 통해 구별된 영역의 존재들은 특정한 방식의 통제, 즉 의례 없이는 공존할 수 없다.

특정 영역의 정결을 유지하고 다른 영역의 부정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화 의례가 필요하다. 정화 의례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행해진다. 첫째, 특정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역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정화 의례가 있다. 보통 때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신이 와서 제사를 받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하는 의례가 대표적이다. 사원, 신전, 또는 신상을 주기적으로 정화하는 의례는 인간 세상과 구별된 신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굿에서 신을 모셔오기 위한 정화의례인 ‘새드림’도 여기에 속한다. 특정한 부정이 없어도 굿의 순서로 행해지는 의례로, 신이 내려와 굿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 참여자, 그리고 제장을 정화한다. 둘째, 다른 영역의 존재와 만날 때 생길 부정을 예방할 목적으로 하는 의례로, 신의 영역에 들어갈 때 인간 영역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몸 전체 또는 일부를 씻는 것이 대표적이다. 제주 토착종교인들이 굿을 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등의 ‘몸정성’을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신의 영역에 인간의 영역의 나쁜 영향, 즉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정화인 것이다. 제주 본풀이와 굿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 먹지 않는 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정화 의례를 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영역 내에서 요구되는 정결의 상태가 손상을 입었을 때, 즉 부정을 입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화 의례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영역과 관련된 것과 접촉해서 생기는 부정을 정화 의례를 통해 씻도록 규정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다. 이 경우, 시체뿐 아니라 피, 정액, 고름, 배설물과 같이 죽음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죽음을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오염원들과 접촉하면 정화 의례로 부정을 씻어내기 전에는 신전에 갈 수 없음은 물론 사회 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다. 제주도에서는 사체

18) Patton, *The Sea Can Wash Away All Evils*, 38.

를 보거나 만지는 것 또는 상가에 가는 것 등의 부정을 입은 사람은 인간 영역 내에만 머물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상태가 된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들이 신의 영역과 접촉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고, 부득이할 때는 팔을 삶아먹고 향나무 삶은 물로 몸을 씻고 집안에 뿌리는 등의 정화 의례를 해야 한다.

덧붙여, 정결의 개념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론적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정결의 개념을 성스러움의 개념과 혼동해왔다. 앞서 언급한 페이튼도 정결의 개념과 성스러움의 개념을 혼동했다. 그는 정결과 부정의 구별을, “성스러움과 양립할 수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의 구별과 같은 의미로 이해했다. 페이튼의 설명에서 부정은 “속된 것”이나 “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과 종종 동일시된다.¹⁹⁾ 정결 개념과 성스러움 개념과의 혼동은 19세기 말 로버트슨 스미스(William Robertson Smith)로 거슬러간다. 스미스는 『셈족의 종교(*Religion of the Semites*)』에서 셈 족의 종교에는 두 종류의 터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신, 성소, 사제 등, 신들 및 그들에 대한 숭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기로 성스러움의 규칙들과 일치한다. 두 번째는 부정함의 규칙과 관련되는 것으로, 출산한 산모나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금기이다. 이 중 두 번째 종류의 터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소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인간들과도 접촉할 수 없다. 스미스는 첫 번째 금기를 성스러움과 관련된 것으로, 두 번째 금기를 부정함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는 “원시 사회에 이 성스러움과 부정함의 금기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으며, 심지어 발전된 종족들에서도 성스러움과 부정함의 개념이 종종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여,²⁰⁾ 성스러움과 부정함의 개념을 모호하게 동일시한다. 로버트슨 스미스 이후, 에밀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을 비롯하여, 엘리아데와 더글라스도 성스러움의 모호하고 양가적인 속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²¹⁾

그러나 성스러움과 범속함의 체계와 정결과 부정의 체계는 구별되어야 한다. 조나단 스미스는 학자들과 일반인 모두 정결과 부정, 성스러움과 범속함, 허락된

19) Paden, *Religious Worlds*, 141, 143.

20) William Robertson Smith, *Religion of the Semit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2[1889]), 152-153.

21) É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Mineola, NY: Dover, 2008[1912]), 409-414;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by Rosemary Sheed (New York: Sheed & Ward, 1958[1949]), 14-15; Douglas, *Purity and Danger*, 7-11.

것과 금지된 것이라는 세 종류의 이원적 체계를 구별하지 않아왔고 그 결과로 성스러움을 모호하고 양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²²⁾ 그는 이 세 범주가 중요한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것 또는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속의 구별이 본질적으로 왕의 것이며 정결/부정의 구별은 제의적인 것이고 허락된 것/금지된 것의 구별은 법적인 것이라는 조나단 스미스의 설명은 더 충분히 논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성과 속의 구별을 정결과 부정의 구별과 혼동해온 학문적 전통에 대해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미스의 말대로 성/속의 구별은 정결/부정의 구별과 상당히 일치하면서도 다른 범주라는 점이다. 로버트슨 스미스의 생각과는 달리, 성스러움과 부정은 층위가 다른 개념이다. 성스러움은 인간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자신을 규정하는 범속한 삶의 자리 너머를 아우르는 범주이다. 신 역시 성스러움이라는 더 큰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정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다른 영역과의 접촉을 통해 특정 영역의 적합한 상태가 손상을 입는 것을 가리킨다. 제주 토착종교에서 모든 신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성스러운 존재이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자신의 영역에서는 정결한 반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의 영역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진다.

또한 로버트슨 스미스는 성스러움과 부정 둘 다 금기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성스러움과 부정을 혼동했다. 엘리아데는 금기가 다른 존재의 질서에 속하는 특정한 사물, 사람, 또는 장소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급격한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²³⁾ 요컨대 금기는 다른 영역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막고자 하는 장치로, 이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다른 두 요인들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성스러움과 부정의 금기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가 다른 개념임이 드러난다. 성스러움과 관련된 금기는 대개 성스러움이 부정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정과 관련된 금기는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다른 것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는 정결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신전에 들어갈 때는 부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성스러움의 금기’라면, ‘부정함의 금기’는 시체와 접촉한 사람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 일으키는 부정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영역과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부정을 막고자 하는 장치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곧 영향을 끼치고 동요를 일으키는 영역들

22) Jonathan Z. Smith, *Relating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107-108.

23) Eliade, *Patterns*, 17.

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스러움의 금기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접근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정함의 금기는 죽음과 관련된 요소들이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에 입힐 수 있는 부정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해야 한다.

제주 토착종교의 신화와 의례에서는 다른 영역에 속한 신들 사이에서 생기는 부정을 막기 위한 금기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부정을 막기 위한 금기가 강조된다. 로버트슨 스미스가 관찰했던 셈 족의 종교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죽음의 영역과 접촉을 통해 부정을 입은 사람들은 신의 영역 뿐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도 정화 의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데 비하여, 제주도에는 죽음의 영역이 살아있는 인간의 영역에 끼치는 부정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요소에 의해 부정해진 인간이 신의 영역에 끼치는 영향을 막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죽음의 영역에 대한 의식도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신들 사이의 영역 구별

3.1. 같이 있을 수 없는 신들의 자리 가르기

토착종교에 참여하는 제주 주민들은 1만 8천이나 되는 많은 신을 섬긴다고 한다. 이 신들 모두가 인간과 구별되는 신의 영역에 속했으나, 어떤 신들끼리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신들의 영역 내에서 구별되는 하위의 작은 영역들이 있는 것이다. 신들 사이의 영역을 구별하는 정결과 부정의 조건은 제주 신화인 본풀이에 잘 나타난다. 본풀이의 주인공이 바로 토착종교의 신이기 때문에, 신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신들은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다른 신들과 영역을 구별한다. 본풀이에서 어떤 신이 다른 신을 “부정하다”고 간주한다면 이는 곧 그 신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신화 속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자리를 가르신들끼리라도 잠시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기도 한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오래간만에 연인 ‘하늘 옥황 문도령’을 만났을 때 장난삼아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자, 화가 난 문도령은 “부정이 만만(滿滿)”하다며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어떤 신이 다른 신에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영역에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상

대가 못마땅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문도령과 자청비의 자리 가름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나중에 다시 만나 부부가 된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대별상이 삼승할망이 말을 걸어오자 “꿈만 꾸어도 새물(邪物)인 여성이 자신 앞에 나타났다”고 꾸짖는다. 본풀이와 굿에서 ‘새(사[邪])’라는 말이 부정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별상은 삼승할망과 같이 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⁴⁾ 나중에 대별상은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여 괴로워하자 삼승할망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간다.

특정한 신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다른 신과 영역을 구별하여 완전히 관계를 끊는 사례도 있다. <토산여드렛당본풀이>에서 토산여드렛당아기씨는 개로육서또가 언약 없이 팔목을 잡자, 그의 행실이 쾌씸하여 부정하다고 선언한 다음 떠나버린다. 이는 개로육서또의 행실이 나빠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나중에 토산여드렛당아기씨는 개로육서또와 헤어진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못된 행실 때문에 두 신은 완전히 갈라서서 다시 만나지 않는다. <세화본향당본풀이>에서 여신 백주또는 외조부 천자또를 찾아가다가 명동소천국이라는 포수 남신을 만났다. 서울 양반의 차림을 한 명동소천국의 걸모습은 그럴 듯 했지만, 그가 거하는 자리에는 짐승의 뼈가 가득했고 누린내가 코를 찔렀다. 백주또는 “더럽다,” 즉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나오다가 그에게 팔목을 잡힌다. 즉시 뿌리치기는 했으나, 그에게 잡힌 손목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손목을 칼로 깎았다. 백주또의 이야기를 들은 외조부 천자또는 “내 자손이 오는데 겁탈하려 했으니 쾌씸하다”며 명동소천국이 자리한 마을인 간마리와 자신의 마을인 세화리의 경계를 완전히 가를 것을 명한다. 백주또는 자신의 피가 흘러서 부정해 질 정도로 명동소천국의 부정을 피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의 영역 경계가 완전히 나누어지고 관계가 단절된 것은 명동소천국의 누린내 나는 부정 때문이 아니라 쾌씸한 행동 때문이었다. 신들끼리 완전히 관계를 끊었을 뿐 아니라,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영역을 구별한다. 본풀이에 따르면, 간마리와 세화리 사람들은 물도 다른 물을 마셔야 하고 길도 같은 길을 걸지 못하고 사돈 관계도 맺지 않는 전통을 지켜왔다. <서귀본향당본풀이>에서는 남편을 두고 자매가 벌인 다툼으로 인하여 영역이 구별된다. 바람웃도는 아내 고산국을 버리고 처제 지산국과 결합한다. 미인인 지산국에게 장가

24) 여성이 부정하다는 대별상의 말 때문에 제주 전통종교에서 남성과 여성이 정결과 부정의 규칙으로 구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남성과 여성은 일상에서나 종교적 행위에서 다른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남신과 여신의 영역이 정결 조건에 따라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신화와 의례에서 남신과 여신은 부부관계를 맺고 공존할 뿐 아니라, 종종 여신이 남신을 부정하다고 내쫓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대별상의 말은 신화가 형성되고 전해 지던 조선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들려다가 그 언니인 고산국과 결혼했다고도 하며, 고산국과 결혼한 후에 동생 지산국이 더 미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도 한다. 화가 난 고산국은 동생 부부와 같이 있을 수 없다며 영역을 가르다. 학담을 경계로 고산국은 서홍마을을 차지하고, 바람웃도와 지산국은 서귀, 동홍 두 마을을 차지한 것이다. 그 후로 양편 마을 사람들 간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축 관리나 벌목 등 생산 활동의 경계도 엄격하게 구별하였다고 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는 신들끼리 영역을 구별하면 신앙의 대상 및 생활권 자체의 완전한 구별로 이어졌다. 갈등의 원인은 쾌심한 행동과 애정행각이었다. 제주 신화에서 신들이 영역을 가르는 가장 빈번한 원인은 돼지고기 부정이지만, 생활권을 완전히 가르 경우 돼지고기는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부각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돼지고기 식성 때문에 신들의 영역이 갈리는 경우에는 한 마을 내에 거하는 신들 사이가 구별된다. 마을 공동체가 섬기는 신들의 신화인 당신본풀이에서 신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질 때 돼지고기 금기가 구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²⁵⁾ 하지만 영역을 구별하면서 더 이상 신들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차지한 마을도 다르면, 주민들의 종교 및 생활 범위까지 구별되며 신들 사이에 위계를 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돼지고기 금기가 신화에 나올 필요가 없다.

3.2. 같은 마을에 좌정한 신들의 위계 가르기: 돼지고기 부정

지금까지 학계는 신앙 및 생활의 범위의 분리로 이어지는 신들의 영역 구별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돼지고기 식성에 따라 신의 위계가 구별된다는 것에는 몇몇 학자들이 주목한 바 있다.²⁶⁾ 현용준은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25) 일반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서는 돼지고기 금기가 강조되지 않는다. 참고로, 제주도에서 ‘조상신’은 혈연조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신을 ‘조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조상신’은 특정 집안이 관련을 맺고 토착종교 의례를 통해 모시는 신을 의미한다. 조상신 중에 육식을 금기하는 양씨아미라는 신이 있으나, 돼지고기 부정으로 다른 신과 영역이 구별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신은 돼지고기뿐 아니라 소고기도 받지 않는다. 본풀이에 따르면 양씨아미가 심방이 되려고 하자 오빠가 부정을 입혀 심방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개고기를 삶은 물을 먹이고자 했다. 양씨아미가 먹기를 거부하자 오빠는 그 물을 누이의 온몸에 부었는데, 결국 양씨아미는 부정을 입어 죽었다. 양씨아미가 죽어서 신이 된 후로, 원래 부정으로 간주되던 개고기와 돼지고기는 물론 쇠고기마저 싫어하게 되었다.

26) 여기서 제주 토착종교 신들이 제물로 받는 음식, 즉 신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신은 공통적으로 쌀밥, 쌀 떡류, 생선, 곡식, 여러 나물, 복숭아를 제외한 과일, 술, 냉수를 제물로 받으며, 쇠고기와 닭고기도 바쳐진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18; 현용준,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집문당, 2005),

는 쌀로 만든 음식을 정결한 음식으로 치고, 이러한 음식을 먹는 신을 상위의 신으로 친다. 반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치고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하위의 신으로 치고 있다”라고 정리했다.²⁷⁾ 문무병은 “신의 식성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맑은 신’과 ‘부정한 신’으로 구분되고 신의 우열이 결정된다”며, 이 두 부류의 신이 같은 마을에 있으면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부정하다고 쫓겨나 ‘따로 좌정’하거나 별거하는 형태로 좌정처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²⁸⁾ 문무병은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마을의 본향당신, 즉 마을 사람들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며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축원하는 신이라는 점도 언급했다.²⁹⁾ 강정식은 이러한 구별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한다. 그는 돼지고기 금기가 하나의 신앙권에 공존하되 위계와 직능을 달리하면서 의례를 따로 벌이는 신을 위하여 마련된 규범이라고 지적하며, 본향신과 마을 내의 다른 신이 돼지고기 금기를 경계로 철저히 나눠놓고 있다고 말한다.³⁰⁾

돼지고기를 받는 신에 대한 의례는 사정이 허락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개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돼지고기를 받지 않는 본향신에 대한 의례는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계절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해질 수 없다. 돼지고기가 제주도 주민들이 명절이나 제사, 집안 잔치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일상적인 고기 음식”이었음을 고려하면,³¹⁾ 돼지고기를 받는 신은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풀이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식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등 인간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는 것도 주민들이 일상과

162-165 참조. 돼지고기는 바쳐지지 않을뿐더러,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이나 돼지고기를 먹는 잔치가 열린 집안의 사람도 곳에 갈 수 없다. 예전에는 쇠고기 대신 노루고기가 바쳐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신들이 육식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신에게는 바치는 음식이 공통적이거나, 마을 공동체의 신인 당신은 돼지고기를 받는 신과 받지 않는 신으로 구별된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본향당신은 쌀밥과 쌀로 만든 떡을 주식으로 하고 나물류, 계란, 청주를 받는다. 토착종교 의례에는 돼지고기 금기가 지켜지지만, 조선후기부터 제주도에 뿌리내린 유교식 조상 제사에는 돼지고기가 바쳐진다(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2009], 194). 조상 제사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정화의 기간을 거친 후 토착종교의 곳에 가야한다.

27) 현용준,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162-163.

28)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327.

29)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26-27, 59.

30)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58.

31)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53.

관련된 일들을 놓고 소원을 빌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들의 영역의 정결 여부는 각 영역에 적합한 조건과 상태에 따라 다르다. 특정한 신의 영역과 접촉하는 인간은 그 신의 속성에 적합한 음식 규정을 지켜야 정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의 영역에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을 먹은 신이나 사람이 들어오면 정결의 조건이 깨진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신의 영역에는 돼지고기가 바쳐지고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영역의 조건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 주민들은 명절이나 제사 등 집안 행사나 잔치에서 돼지고기를 요리하거나 먹은 상태이더라도 돼지고기를 받는 신에게는 별 문제 없이 소원을 빌 수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를 받는 신은 대개 사람들이 자주 소원을 빌어야 하는 신이다.³²⁾ 여신 중에는 산육과 치병을 담당하는 일헛당신이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고,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남신은 수렴신, 장수신, 풀무의 신, 풍어를 담당하는 선왕신³³⁾ 등 풍요와 관련된다.

본풀이에서 신이 돼지고기를 먹게 된 주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신이 임신 중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돼지고기 냄새를 맡거나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돼지고기를 받는 신이 된 것이다. 남신들은 원래 돼지 한 마리를 다 먹는 신이었던 반면, 여신들은 임신 중 참을 수 없어서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거나, 돼지털을 태워 냄새를 맡거나, 돼지고기 국물을 먹어 식욕을 달랬다. 부정한 냄새를 맡은 배우자 남신으로부터 본향당 밖으로 쫓겨난 여신은 다른 곳에 좌정하게 된다. 둘째, 엄청나게 대식(大食)하는 영웅 남신에게 소를 한 마리씩 바치던 주민들이 더 이상 곶을 할 때마다 소를 바칠 수 없는 사정에 이르자 신의 동의를 받고 돼지를 한 마리씩 바치게 된 것이다.³⁴⁾ 남신은 케네깃도처럼 원래 본향당 아닌 다른 곳에 스스로 좌정하거나 소로소천국처럼 명목상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쫓겨나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본향당신과 떨어진 곳에 거하게 된다는

32)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36-41. 강정식은 와산불뚝당이나 하도삼성당을 예로 들어, 일헛당신이었던 신이 본향당신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돼지고기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때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불교적인 속성을 지닌 신으로 변용된다는 주장도 제시한다.

33) 풀무의 신과 선왕신은 둘 다 영감신, 즉 도깨비와 동일시된다.

34) 예외적으로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지 않은 신으로 구좌읍 행원리 남당에 좌정한 ‘중이데서’가 있다. ‘중의 대사(大師)’라는 뜻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이데서는 원래 불교 승려였던 신이다. 배가 고파 걸식하던 중 돼지고기 국물에 맡은 국수를 먹어 부정을 입고, 어부들이 모시는 남당에서도 아래쪽에 좌정하여 어장과 잠수를 차지한 신이 된다.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지는 않지만, 배가 고파서 돼지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점은 쫓겨난 여신과 다를 바 없다.

돼지고기 때문에 별거하게 된 여신들은 본향당과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당으로 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본향당 울타리 밖에 좌정한다. 돼지고기를 먹은 아내를 쫓아낸 남신들은 대개 바람 위에 좌정한 신이라는 뜻을 지닌 ‘브람웃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³⁵⁾ 제주 토착종교에서 “바람 위”는 부정한 신이 오지 못하는 신의 영역을 가리키며, 부정한 신이 가야 하는 곳은 “바람 아래”가 된다. 그래서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못된 중 정수남이를 죽이고 언덕 위로 올라갈 때 언덕 위에서 바둑을 두던 세 신선이 “부정이 만만(滿滿)하다며 “바람 아래”로 지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돼지를 먹는 남편을 쫓아낸 여신을 칭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여신의 위치가 먹는 남신의 위치보다 높은 것이 당의 명칭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송당의 여신 백주또가 위의 ‘웃손당’에 좌정한 반면 남편 소로소천국은 쫓겨나 아래인 ‘알손당’에 좌정한다. ‘위’와 ‘아래’라는 신들의 위치는 실제 마을의 지형의 위치와도 관계가 있겠으나, 신들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돼지고기를 먹어 남편에게 쫓겨난 여신들의 사례를 몇 개 살펴보겠다. 제주시 용담동 내왓당의 상스대왕은 작은 부인 정절상군농이 돼지고기 금기를 어기자 작은 부인은 물론 큰 부인 ‘중전대부인’까지 쫓아낸다. 두 부인은 같은 용담동 안에 있는 다른 당인 궁당에 좌정한다. 본풀이에 따르면, 후처 정절상군농이 임신 중에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돼지털을 그을려 코에 댔다. 돼지의 부정한 냄새인 ‘동정내’를 맡은 상스대왕은 부인들이 부정해져서 자신과 같이 좌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본향당에서 쫓아낸다. 구좌면 월정리의 본향당신 신산국의 부인 서당할마님은 아이 일곱을 낳고 남편과 잘 살다가 돼지털을 먹고 부정하게 되어 쫓겨난다.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환갑잔치에 갔다가 오는 길에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에 껴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속에 있는 돼지털을 보고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해 털만 불에 그을려 먹은 것이다. 부정한 냄새를 맡은 신산국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차마 땅과 물을 가를 수는 없지만 자리라도 갈라야 한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쫓아냈다. 서당할마님은 치병의 신이 되어 월정리 마을 사람들에게 돼지 제사를 받게 되었다. 동일한 월정리 주민들의 신앙과 곳의 영역 내에서 위계와 직능이 갈리게 된 것이다. 토산리 신중또 역시 돼지 발자국에 고인물을 마시고 돼지털을 그을려 먹어서 남편에게 쫓겨나 일궈당신이 된다. 돼지 발자국에

35)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35-36. 브람웃도는 돼지고기를 받지 않는 정결한 신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이면서, 특정 마을 본향신의 이름일 때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고인 물을 먹거나 냄새만 맡은 다른 여신과 달리 돼지고기를 직접 먹은 여신도 있다. 보목리의 신증또는 “물명주 수건을 손에 감고 돼지 밀구멍에 손을 넣어 간 회를 꺼내 먹어” 남편 브람웃도와 별거하게 된다.³⁶⁾

돼지고기를 먹는 남신이 아내에게 쫓겨나거나 아내보다 하위의 신이 되는 이야기는 <송당본풀이>와 <세화본향당본풀이>에 잘 나타난다. <송당본풀이>에서는 남편의 나쁜 행위 때문에 부부신이 영역을 가르게 되지만, 결국 돼지고기를 먹는 신과 먹지 않는 신이 구별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 토착신이자 수렵신인 소로소천국은 외래 농경신인 백주또와 결혼한 후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먹이기로 한다. 그러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소로소천국은 밭을 갈던 자신의 소를 구워서 먹고 도 배가 차지 않아 부근에 있던 남의 소도 잡아먹는다. 농사를 지어 그 산물을 먹기로 하고서는 소를 잡아먹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백주또는 “남의 소를 잡아먹은 소도독놈”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땅 가르고 물 갈라 남편과 살림을 분산한다. 제주도에서 소를 한 마리씩 통째로 먹는 대식 식성의 신들은 결국 돼지고기를 먹게 된다. 결국 돼지고기를 먹는 소로소천국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백주또와 구별되는 것이다. 의례에서 백주또는 본향당신으로 쌀 음식 위주의 제사를 받고 소로소천국은 돼지고기 음식을 받게 된다. 여신은 남의 소를 도둑질한 나쁜 행실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신이 영역을 구별한 중요한 이유가 돼지고기 식성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소로소천국과 금백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케네깃도는 타국을 떠돌다가 영웅이 되어 제주에 돌아온 후 김녕리 당신이 되는데, 처음에는 소를 제물로 받다가 주민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돼지고기를 먹는다. 케네깃도는 김녕의 본향당신인 큰당 객사전부인에게 밀려 본향당신이 되지 못한다. 육식을 위주로 제물을 받는 당신들은 결국 돼지고기를 먹게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보다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3.3. 신이 행하는 정화 의례: <세화본향당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에는 자신의 영역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른 영역에 들어가는 신이 부정을 씻어내려고 행하는 정화 의례와, 부정 때문에 특정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씻어내는 정화 의례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돼지고기를 먹는 영웅신 금상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아내 백주또와 같이 살

36)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183.

면서 굿을 할 때만 상을 따로 받는다. 본향당신 천자또와 외손녀 백주또는 쌀로 만든 음식과 채소를 먹는 신이다. 장군이자 영웅신인 금상님이 백주또를 찾아와 결혼하고자 했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식성 때문에 거절당하자, 돼지고기 먹는 습관을 포기하기로 하고 결혼을 허락받았다.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정을 씻어내야만 한다. 그래서 금상님은 “팔죽을 쭈어 목을 씻고 소주로 목욕을 하고 청감주로 양치질”하는 정화 의례를 하고 천자또, 백주또의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상님이 고기를 먹지 않아 굵어 죽게 되자, 백주또는 천자또에게 건의하여 남편이 돼지고기를 먹게 하기로 결정한다. 다시 돼지고기를 먹은 금상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의 영역에 요구되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화 의례가 필요하다. 금상님은 다시 소주로 목욕하고 청감주로 양치질하여 돼지고기 부정을 씻은 후에 천자또, 백주또와 함께 좌정한다.

<세화본향당본풀이>가 묘사하는 신의 정화의례는 실제 굿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민들이 굿을 할 때면 먼저 천자또와 백주또에게 쌀로 만든 음식, 청감주, 계란으로 차린 상을 바친다. 그런 다음 백지를 둘러 금상님의 자리를 구별하고 돼지고기를 올린 상을 바친다.³⁷⁾ 음식을 바치는 절차가 끝나고 다시 세 신이 같이 좌정하려면 금상님은 다시 맑은 술로 목욕과 양치질을 하는 정화 의례를 거쳐야 한다. 이때 심방은 “청감주로 목욕합니다,” “일세(一洗)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주를 입에 머금어 뿌린다. 심방이 간단한 말과 행동으로 정화 의례를 하는 동안 신은 자신의 정화를 “알아서 한다”고 여겨진다.³⁸⁾ 심방이 행하는 정화 의례는 신이 직접 하는 정화 의례의 상징인 셈이다.

세계의 여러 신화에는 신들이 종교 의례를 수행하거나 의례의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제주 신화에서도 신들이 의례를 행하고 의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초공본풀이>에서 무조신 초공의 외조부모는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깨끗이 하고 소금에 밥을 먹는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 자식을 얻기 위한 불공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초공의 어머니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였다. 신들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불공을 올리며 이를 위해 자신을 정화한 것

37) 굿을 하는 중에 백지 한 장으로 신들 사이의 영역을 가르는 모습은 배 위에서 하는 풍어기원 제사인 ‘연신’에도 잘 나타난다. 제사를 받는 신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용왕신과 돼지고기를 먹는 선왕신이다. 먼저 더 상위 격의 신인 용왕신을 모시고 쌀밥, 떡, 과일, 나물, 술 등의 음식상을 바친다. 용왕신을 대접한 후에는 요왕상과 선왕상 사이를 백지로 가려서 영역을 구별한 후에 선왕에게 돼지고기를 바치는 것이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172-173 참조.

38) 서순실 심방과 이용옥 심방 인터뷰 중.

이다.

신이 의례를 수행하거나 의례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종교 행위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제주 토착종교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관점에서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신들의 행위가 모범이자 근원이다. 패튼은 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는 신에게 속한 것이며, 신에게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신화 속에서 신들이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 의례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³⁹⁾ 이를 제주 본풀이에 적용하자면, 신들이 부정을 피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을 그 신으로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엘리야데가 말한 것처럼, 신화 속에서 신이 행한 일들은 인간의 종교 행위의 방향과 특징을 제시한다.⁴⁰⁾ 적어도 신자들의 관점에서는 신들의 영역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속성과 조건은 인간 사회의 반영이기보다는 그 자체로 인간 행위의 모범이다. 나아가, 신자들은 신이 인간에게 모범을 제시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굿을 하는 동안 신화적 시간이 현재에 반복되며, 금상님은 돼지고기를 먹은 후 청감주 목욕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⁴¹⁾

제주 토착종교의 신들은 구별된 영역에 속한 신들과의 접촉을 피한다. 같은 마을에 거하는 신들 사이에 돼지고기 식성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면 낮은 지위의 신은 높은 지위의 신의 영역에 부정을 유발할 수 있다. 돼지고기를 먹는 금상님과 먹지 않는 백주또는 같은 영역에 공존할 수 없는 조건을 지니고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여 부정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심방이 신의 정화 의례를 상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신들의 정화 의례가 현재에도 계속해서 행해지고, 금상님이 백주또의 영역에 같이 거하기에 적합한 정결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4. 신의 영역과 인간 영역의 구별

4.1. 본풀이에 나타난 구별

39) Patton, *Religion of the Gods*, 17.

40) Eliade, *Patterns*, 410-411.

41) Patton, *Religion of the Gods*, 17.

신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과 구별된다. 제주도의 많은 당은 울타리를 쳐서 주변의 장소와 구별된 공간임을 표시한다. 신목이나 제단 없이 울타리만 둘러진 해신당도 많이 있다. 당의 울타리는 “신계와 인간계를 가르는 경계”라고 할 수 있다.⁴²⁾ 앞에서 언급했듯이, 곳을 행하는 제장 내에서도 신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다른 장소와 구별된다.

본풀이에도 신의 영역과 인간 영역의 구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신이 인간의 영역과 구별되는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인간 영역의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잡혀서 명계에 있던 중 석류 몇 개를 먹었기 때문에 1년 중 3분의 1은 반드시 명계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의 음식을 먹어 천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 온 신들의 이야기가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온다. 신이 부모에게 죄를 지어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모티브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 영역과의 접촉을 통해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신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명시된 신화는 많지 않다. 제주시 용강동 ‘웃무드내 췌당’의 본향당신은 원래 옥황상제의 막내딸이었다. 잠시 인간 세상에 왔다가 곡식 낱알을 먹었다고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 신이다. 이 당신본풀이에는 신이 인간의 곡식을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지 잘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주시 해안동 ‘웃당’ 및 병다동 ‘오드시당’의 당신본풀이에는 곡식을 먹은 것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제시된다. 웃당의 당신 대별왕과 제주시 병다동 오드시당의 당신 소별왕 역시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쫓겨 왔다. 이들은 원래 특정한 마을 공동체의 신(堂神)이 아니라 제주도 천지창조신화 <천지왕본풀이>에 등장하는 ‘일반신’이다. 모든 큰곳과 당곳의 맨 처음 순서인 초감제 때 구송되는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지왕의 아들로, 각각 저승과 이승을 차지한 천계의 신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해안동과 병다동에서 마을 공동체의 당신으로 모셔진다. 당신본풀이에 따르면, 이 형제는 인간 세상을 구경하러 내려와 보니 벼가 가장 신기하게 보여서 그 이삭을 몇 알 맛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버지인 천지왕이 “인간의 음식을 먹어 인간 냄새가 난다고 하여 추방”해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 오게 된 것이다.⁴³⁾ 신이 인간의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의례의 절차를 따라서 받아야 한다. 함부로 인간 영역의 것을 먹으면 신의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42)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84.

43)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507;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186-187.

인간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신에게는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이 인간 세상에 들어올 때는 신의 영역이 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잘 찾아야 한다. <서귀본향당본풀이>에서 브람웃도와 지산국은 “먼지 냄새, 그을음 내, 화식 냄새” 등 인간의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인간 삶의 흔적 때문에 김봉태의 집에는 머물지 못한다. 인간 영역에서는 부정이 아니지만 신의 영역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에는 맞지 않았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의 삶 자체가 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부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신들은 김봉태가 ‘웃당팻’에 갔다가도 여기서 말 탄 인간이 보이고 개짐승이 보여 살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떠나고자 한다.⁴⁴⁾ 신당이 인간 영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도 신이 불편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신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4.2. 신의 영역에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들

본풀이는 신들이 주인공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구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 않다. 신의 영역과의 구별을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할 규칙은 인간이 행하는 의례절차에 더 분명히 나타난다. 하지만 제주도 토착 의례와 관련된 정결 규칙 및 개념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조선시대에 제주도 풍속에 대한 기록들에도 곳을 하기 전에 부정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정결 규칙에 대한 언급은 없다. 김정의 『제주풍토록』(1520-1521), 김상헌의 『남사록』(1601), 이건의 『제주풍토기』(1628-1635),⁴⁵⁾ 이원진의 『탐라지』(1653),⁴⁶⁾ 이형상의 『남환박물』(1704)⁴⁷⁾ 등은 제주 토착종교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할 뿐, 정결 체계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제주 종교의 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기록은 20세기의 문턱에 들어서야 등장한다. 제주도에 파견된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원영은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소개하고 제주 습속을 비판할 목적으로 1899년경에 『수신영약』이라는 작은 책자를 저술하였다. 『수신영약』에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심방곳”을 하며 “각 신을 숭상”하는 풍속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이 등장한다. 김원영

44)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118-121.

45) 『제주풍토록』은 1520-1521년, 『남사록』은 1601년, 『제주풍토기』는 1628-1635년 제주도에 머물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세 편 모두 제주도 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교육자료 29호, 제주: 1976)에 실려 있다.

46) 이원진, 『역주 탐라지』, 강찬흡 외 역(서울: 푸른역사, 2007[1653]).

47) 이형상, 『남환박물』, 이상규·오창명 역주(서울: 푸른역사, 2009[1704]).

은 마을 공동체 및 가정 단위로 행해지던 여러 곳을 소개하면서 토착종교에서 부정을 입게 하는 요인들을 덧붙여 소개한다.

몸 비린[부정을 입는] 것은 뱀 죽은 것을 보면 7일 동안이요, 말과 개고기 먹은 사람은 3일 동안이요, 산모가 7일 동안이요, 경수 월수(月水)하는 여자가 7일 동안이요, 상처와 손 베임과 존장(尊長)에게 매맞음은 다 나을 때까지니라. 또 고양이 죽은 것을 보아도 몸이 비린다고 한다.⁴⁸⁾

이 구절은 토착종교의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곳에 대한 소개와 비판에 바로 이어진다. 따라서 인간이 부정한 상태가 되어 신과 접촉할 수 없게 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뱀 죽은 것을 보면 7일 동안 곳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말이며, 상처가 난 사람은 다 나을 때까지 곳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수신영약』은 가톨릭 신부가 선교와 강론의 목적으로 쓴 것이 분명하지만 제주 토착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왜곡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 책자에 소개된 제주의 신앙과 의례 중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면접한 여러 심방들도 곳을 하기 전에 피해야 하는 부정으로 『수신영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요인들을 언급했다. 물론 김원영 신부가 정리한 목록이 당시에 제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졌거나 당시 부정의 요인들을 다 소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에 따라 또는 신의 속성에 따라 금기의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심방들이 부정의 요인으로 꼽는 내용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심방이 피하는 부정과 돈을 들여 곳을 주최하는 주민들이 피해야 하는 부정도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금도 제주 주민들이 곳을 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방식과 피하는 부정이 있다. 곳에 참여하기 전에 주민들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려는 목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지키는 것을 ‘몸정성’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7일간 몸정성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대개 3일간 몸정성을 지킨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마을 단위의 곳을 하기 전에는 마을 길목에, 집안에서 하는 곳을 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는 길에 금줄을 쳐서 외지에서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신의 영역을 더럽게 할 수 있는 인간 영역의 영향을 피하고 씻어낸

48) 김원영, 『수신영약(修身靈藥)』(1900), 김영환 역,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 797. 『수신영약』은 1899년 집필되고 1900년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에 번역본이 부록(757-799쪽)으로 실렸다.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먹거나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는 것도 피해야 한다. 대개 사람과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물론 보지도 말아야 하며, 특정한 육류를 삼가야 하며,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배설물 통처럼 더러운 것에 손을 대는 일도 피해야 한다. 나쁜 말을 하거나 듣지 않도록 조심하며 몸을 깨끗이 씻어 곳을 준비한다.

곳을 하기 전에 피해야 하는 부정과 그 방법에 대해 심방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하면 신의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다음은 여덟 명의 심방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생각하는 몸정성과 정화 의례를 요약한 것이다. 면접한 순서대로 나열했다.

<면접자 1 - 김윤수 심방>

* 몸정성 기간: 7일

* 하지 말아야 할 것: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신을 모시는 경우 돼지고기 먹기, 상가에 가는 것, 피를 보는 것, 동물 사체를 보는 것, 성관계

* 정화 의례: 팔 삶아 먹기, 향나무 삶은 물을 뿌리고 몸 닦기

* 덧붙인 설명: (음식 금기) 자신의 마을은 해안에 있는 당신을 모시기 때문에 돼지고기 금기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불도조상이나 책불조상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집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⁴⁹⁾ 당연히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심방이 개고기를 먹으면 신의 노여움을 받아 죽는다. (정화 의례) 팔과 향나무 삶은 물로 하는 정화 의례는 동물 사체나 피를 봤을 때도 효능이 있다.

49) 김윤수 심방이 언급한 “불도조상”이나 “책불조상”은 일월조상으로 불리는 조상신이다. 현용준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246-247에서 일월조상이 특수한 직업을 시작한 조상신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일월조상에는 벼슬을 했던 조상인 흥부일월, 택일, 풍수지리, 한의원 등의 일을 한 조상인 책불일월(책 불 일월의 와음), 사냥을 잘 하던 조상인 산신일월, 삼승할망으로 산과의 역할을 담당한 조상인 불도일월 등이 있으며, 조상이 농업이나 어업을 이어온 집안에는 일월조상이 없다. 일월조상은 다른 조상신들보다 더 엄격한 정결의 조건을 요구한다. 김윤수 심방은 일월조상을 모신 집안은 더 엄격한 돼지고기 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정공철 심방도 일월조상을 ‘맑은 조상’이라고 부르며 이 신을 맞는 ‘일월맞이’ 의례를 할 때 월경 중인 여성이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월조상의 속성에 대하여 정결 및 부정과 관련시켜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불도맞이’와 ‘일월맞이’ 곳에 불교적 색채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불교의 정결 개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불도맞이 제차(祭次) 중 ‘상단숙여 소지사름’과 ‘메어들여 석살림’은 일월맞이에서도 신의 이름만 바뀌어 사용하고, 일월맞이의 ‘수룩침’도 불도맞이의 ‘수룩침’처럼 불당(佛堂)에 소원을 비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불도맞이는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92-122, 일월맞이는 같은 책 123-125를 참조했다.

<면접자 2 - 이용옥 심방>

* 몸정성 기간: 7일

* 하지 말아야 할 것: 상가에 가는 것, 출산한 곳을 비롯한 피가 있는 곳에 가는 것, 동물 사체 특히 뺨을 보는 것, 뺨고기와 개고기 먹는 것, 당에 따라 돼지고기 먹는 것, 욕하는 것, 몸에 냄새가 나는 것

* 정화 의례: 팔 삶아 먹기, 향나무 삶은 물을 뿌리고 몸 닦기, 목욕과 옷 갈아입기

* 덧붙인 설명: (고기 금기) 자신이 맡은 와산리 불뚫당 마을제를 할 때면 주민들이 돼지고기는 물론 소고기도 먹지 않는다. 집안 잔치가 있으면 곳에 올 수 없다. 고기를 먹게 되고, 먹지 않더라도 고기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부정이 돼서 정성이 안 된다. (정화 의례) 팔과 향나무 삶은 물로 하는 정화 의례는 사체나 피를 봤을 때도 효능이 있다. 몸 정성 중 몸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욕을 자주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한다.

<면접자 3 - 김영철 심방>

* 몸정성 기간: 7일

* 하지 말아야 할 것: 돼지고기 먹기, 상가에 가는 것, 피를 보는 것, 죽은 동물을 보는 것, 성관계(성관계는 3일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함)

* 정화 의례: 팔죽을 쑤어 먹음, 향나무를 달인 물로 씻기, 굿을 하는 중 '새드림' 정화 의례

* 덧붙인 설명: (정화 의례) 부득이하고 급한 경우에만 팔죽과 향나무 달인 물로 정화하지만, 원칙적으로 몸정성 기간 동안 부정을 입으면 굿에 참여할 수 없다. 새드림은 심방과 본주가 자신도 모르게 눈으로 부정을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소리를 들어 입은 부정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자 4 - 정태진 심방>

* 몸정성 기간: 3일

* 하지 말아야 할 것: (송당 굿에 참여하기 전)소고기와 돼지고기 먹기, 동물 사체 보기(뺨, 개, 고양이), 상가에 가기, 출산한 곳에 가기

* 정화 의례: 새드림으로 자신도 모르게 생긴 부정을 없애는 것 외에는 부정을 없애는 정화 의례는 없다.

* 덧붙인 설명: (고기 금기) 송당본풀이에서 백주또는 소천국이 소를 먹어서 갈

라셨기 때문에 굶을 하기 전에는 돼지고기는 물론 소고기도 금한다. 닭고기는 괜찮다. (사체 부정) 개 사체를 보는 것이 고양이 사체를 보는 것보다 더 큰 부정이 다. (피, 월경 부정) 상처 때문에 피가 나는 것은 부정이 아니다. 하지만 월경하는 여성은 당에 올 수 없다. (상가 부정) 집안에 상이 있을 경우 매장 후 3일 후가 지나야 당에 올 수 있다. 그 전에는 초감제 끝난 후에도 와서는 안 된다. (정화 의례) 사체를 보면 향나무 달인 물로 목욕하면 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부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팔을 먹는 것도 소용없다. 새드림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과 접촉한 사람이 온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

<면접자 5 - 고순안 심방>

* 몸정성 기간: 예전에는 7일, 요즘은 3일

* 하지 말아야 할 것: 돼지고기 먹기, 상가에 가기, 동물 사체 보기

* 정화 의례: 향나무 삶은 물을 마시기, 향나무 삶은 물로 씻기, 팔 삶아서 먹기, 굶을 하는 집 입구에 금줄을 두르고 집안 주변에 물을 뿌리기, 굶을 하는 중에 대나무 잎에 물을 적서 뿌리는 '새드림' 정화 의례

* 덧붙인 설명: (사체 부정) 동물 사체 중 고양이 죽은 것을 보는 것이 개 죽은 것을 보는 것보다 나쁜 부정이다. 뱀 사체도 해를 불러일으킨다. 심방은 사체를 볼까봐 항상 옆이나 아래를 보지 않는다. (상가 부정) 집안에 상 있는 사람은 초감제 이후에 굶에 참여가 가능하다. (본주와 다른 참여자) 본주가 부정을 입으면 굶을 하지 않는다. 본주가 아닌 참여자는 정화 의례 후에 본인 생각에 괜찮다 싶으면 올 수 있다.

<면접자 6 - 김연희 심방>

* 몸정성 기간: 7일

* 하지 말아야 할 것: 돼지고기 먹기(특히 마을굿[본향당굿]할 때), 사체 보기(사람, 개, 뱀, 까마귀 등), 출산 보기, 피 보기, 성관계(부부가 같이 자는 것 포함), 돌아다니는 것(부정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 정화 의례: 향나무 삶은 물로 목욕, 팔 삶아 먹음, 새드림

* 덧붙인 설명: (사체 부정) 사체를 보면 굶을 할 수 없다. (월경 부정) 심방이나 본주의 월경 모두 사소한 부정에 불과하여 새드림 정화 의례로 충분히 몰아낼 수 있다. (뱀, 개 부정) 심방은 절대 뱀과 개를 먹으면 안 된다. 뱀은 신과 관련되었고, 개는 조상신 양씨아미가 개 삶은 물에 목욕시켜서 죽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면접자 7 - 서순실 심방>

- * 몸정성 기간: 예전에는 7일, 요즘은 3일
- * 하지 말아야 할 것: 초상집 가기, 출산한 곳 가기, 생피 보기, 화재가 발생한 곳 가지 않기(신은 불에 그을린 냄새를 싫어한다), 돼지고기 먹기, 동물 사체 보기
- * 정화 의례: 향나무 달인 물을 뿌리고 몸 씻기, 팔 삶아서 먹기, 울레에 금줄을 매기(부정한 것이나 부정 입은 사람을 못 오게 하기 위해)
- * 덧붙인 설명: (월경 부정) 월경 기간 중 심방이 조심하기는 하지만 곳을 못하는 부정은 아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본주에게는 부정이지만 큰 부정이 아니다.

<면접자 8 - 정공철 심방>

- * 몸정성 기간: 3일 이상
- * 하지 말아야 할 것: 상가 가기, 돼지고기 먹는 것(신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곳의 경우), 생피 보는 것, 성관계
- * 정화 의례: 향나무 달인 물로 목욕, 팔죽 먹기
- * 덧붙인 설명: 산신(産神) 할머니를 맞는 불도맞이와, 맑은 조상인 산신일월, 불도일월, 책불일월 등의 일월신이 있는 집안에서 하는 일월맞이에는 월경하는 여성이 참여할 수 없다.

심방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정의 요인과 부정을 피하는 방법을 모두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지켜지는 금기를 언급하지 않기도 했고, 자신이 더 중시하는 부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도, 몸정성과 부정의 종류에 대해 심방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여성인 서순실 심방과 김연희 심방은 월경이 큰 부정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정태진 심방은 월경한 여성이 절대 본향당 의례에 올 수 없다고 했다. 동물 사체 중 부정을 유발하는 정도에 대한 견해도 조금씩 달랐다.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견해는 심방이 모시는 신의 속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소고기 부정을 지켜야 하는 와산불뚝당과 송당은 소고기 금기도 지켜야 했다. 향나무 물로 씻고 팔을 먹는 방법의 정화 의례가 있다는 것은 모두 인정했으나, 그 효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방들이 부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진 견해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

다. 무엇보다도, 곳을 통하여 인간이 신을 만나려면 일정 기간 신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돼지고기처럼 인간들의 일상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도 신에게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 심방들은 공통적으로 출산, 성행위, 사체를 부정의 요인으로 꼽았고, 대부분의 심방들이 피를 보는 것도 부정이라고 말했다. 이 요인들은 모두 죽음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많은 문화에서 특히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영역은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통해 구별되어 왔다. 살아있는 인간의 영역의 속성을 죽은 자의 영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많은 종교들의 첨예한 관심사였다. 로버트슨 스미스가 썩죽의 종교를 사례로 말했듯, 출산한 여성이나 사체와 접촉하면 신의 영역에 갈 수 없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하게 된다. 구약성서 『레위기』에는 사람과 동물의 사체와 더불어, 정액, 피(월경), 고름, 전염성 피부병 등이 부정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이 왜 부정한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으나, 이 부정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여진다.⁵⁰⁾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며, 이 사람과 접촉한 다른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정화해야 한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정 요인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출산한 여성을 봤다고 해서 정화 의례와 정화 기간을 거쳐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죽음을 나타내거나 죽음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들은 신의 영역에는 부정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신이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때면, 살아있는 인간에게 늘 위협이 되는 죽음의 영역의 부정이 신에게도 옮길 수 있다.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죽음의 영역의 영향이 신에게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인간 생명 및 죽음과 관련된 것은 신의 영역을 오염시킨다. <세경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 <토산여드렛당본풀이> 등에 신들이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공본풀이>에서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에 간 할락궁이는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를 몇 방울 연못에 떨어뜨렸다. 인간의 생피가 들어간 연못은 즉시 부정해져서 서천꽃밭에서는 그 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렸다.⁵¹⁾

50) Jacob Milgrom, *Leviticus 1-16* (New York: Doubleday, 1991), 45-47.

51) 고 안사인 심방의 구연 내용. 양창보 심방의 구연에는 피를 내서 서천꽃밭에 뿌리자 홀연 광풍(忽然狂風)이 일어났다고 나온다.

피, 출산, 성행위는 모두 인간 생명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양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피는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 몸 밖에 나와 있으면 죽음을 상징한다. 출산은 새로운 인간 생명이 이 땅에 나오도록 하는 일인 동시에, 많은 피를 수반하여 죽음의 위험과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성관계는 생명 태동의 출발점이지만 인간 몸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게 하기도 한다. 이들은 신이 싫어하는 인간 영역의 속성이면서, 살아있는 인간에게도 위험한 죽음의 영역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체는 명백히 죽음의 부정을 입히는 요인이다. 인간의 시체는 강력한 부정을 유발한다. 하지만 모든 동물의 사체가 부정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쥐 죽은 것을 본다고 부정을 입지는 않는 것이다. 신화에 등장하거나 주민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의 사체가 부정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개, 고양이, 까마귀, 그리고 뱀은 본풀이에 중요하게 등장하거나 인간과 어느 정도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등의 관계를 맺고 있다.

4.3.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정화 의례

심방들은 주요한 부정을 입으면 신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완전하게나마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정화의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향나무를 삶은 물로 씻고 이 물을 뿌리는 것이다. 서순실 심방은 향나무에는 신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부정을 씻는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팔을 삶거나 죽으로 끓여 먹는 것이다. <세화본향당본풀이>에서 금상님이 돼지고기 부정을 씻기 위해 먼저 팔죽을 쑤어서 목을 씻어야 한 것처럼, 팔은 정화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향나무 삶은 물과 팔죽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하게 된 상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도 효력이 있는 정화는 다른 영역에 들어갈 때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피하고 인간의 영역의 속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제주 주민들은 몸정성 기간 동안 신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몸정성을 하면서 죽음의 부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인간의 영역의 흔적을 최대한 씻어내도록 노력해야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심방들은 굿의 순서에 포함되는 정화 의례 세드림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입은 부정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정을 씻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세드림은 신들이 내려오도록 신궁(神宮)의 문을 연 후에 신들이 오는 길의 모든 부정한 것을 몰아내며,

신, 굿하는 장소, 참여자를 동시에 정화한다. 특별히 부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없어도 신이 내려와서 머물기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화 의례이다. 새드림에서 ‘새’는 사(邪)를 뜻한다. 제주에서는 사를 흔히 ‘새’로 읽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새(鳥)와 혼동된다.⁵²⁾ 부정을 쫓는 것도 새를 쫓아내는 것과 동일시되어, 심방은 노래를 부르며 새를 쫓아내는 동작을 한다.⁵³⁾ 큰굿 중 초감제,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시왕맞이 등의 순서에서 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드림을 해야 한다. 심방이 무악 반주에 맞춰 부정을 씻는 노래를 부르며,⁵⁴⁾ 입에 물을 머금고 뿌리거나 푸른 댓잎에 물을 적서 제장 주변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뿌리며 부정을 쫓아내는 동작을 한다. 새드림에서 부정을 씻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은하봉천수”라고 부른다. 원래는 아침 이슬을 대접에 가득 받아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판매하는 생수를 사용한다. 새드림은 제장과 참여자를 정화하여 신의 영역에 적합하게 만들뿐 아니라, 신들이 인간 영역에서 입는 부정까지 정화한다. 굿을 할 때마다 신들은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입은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정화 의례를 행해야 한다. 제주 토착종교에서 하늘을 차지한 신으로 섬겨지는 옥황상제도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며 붙는 부정을 새드림을 통해 씻어야 한다. 시왕맞이를 할 때면 살아있는 인간 영역의 부정뿐 아니라 죽음의 영역의 부정도 씻어야 한다. 저승의 신인 시왕을 모시면서 저승의 부정이 옥황상제에게 달라붙기 때문이다. 김연희 심방은 새드림이 “모든 새(邪, 부정)를 복합적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연희 심방에 따르면, “이승 새만 다리는 것이 아니라, ‘옥황상제 오시는데, 새 돌아옵니다. 저 새를 다리자’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승 새와 저승 새를 모두 다린다.”

제주도 토착종교에서 인간의 영역은 신의 영역과 엄격히 구별된다. 인간 영역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먼지 냄새, 그을음 냄새, 화식 냄새를 신은 싫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부정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이 인간의 영역에 들어와서 의례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음식을 먹으면 신의 영역에 부적합한 상태가 된다. 신은 인간이 의례로 규정된 방식으로

52) 사(邪)가 새(鳥)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은 <세경본풀이>와 <지장본풀이> 등의 신화에도 나타난다. 한을 품은 서수왕따님이 새의 몸으로 환생하여 새(邪)로 사람의 몸에 들어 문제를 일으키고, 기구한 운명을 지닌 지장아기가 새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사람의 몸에 새(邪)가 되어 들어간다.

53)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32, 87, 115.

54) 심방이 초감제 중 구송하는 노래는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53-58을 볼 것.

바치는 음식을 받아야 부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도 의례적인 준비를 해야 신의 영역에 부정을 유발하지 않는다. 신의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인간 영역 및 죽음과 관련된 요소들을 피하고 씻어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토착종교의 본풀이와 의례 절차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정결 개념을 살펴보았다.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인간이 자신을 비롯한 세상의 주요한 존재들의 영역을 구별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정결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해석할 때 설정하는 우주 내 영역의 필수적인 조건 또는 상태이며, 정결하다는 것은 특정 영역 내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부정은 한 영역의 조건이 공존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의 영향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를 가리킨다. 제주 토착종교에서는 부정이 “백 보 바깥”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듯 상당히 멀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백지 한 장”으로 영역을 구별함으로써 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여긴다. 정결과 부정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간 영역 내에 있으면 정결하더라도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에는 부정할 수 있으며, 본향당신에게 갈 때는 부정하더라도 영감신에게 갈 때는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정화 의례는 특정 영역의 필수적 조건을 해치는 다른 영역의 나쁜 영향인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영역 내에 적합한 정결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진다.

제주도 본풀이와 굿에는 신들끼리 영역을 구별하는 방식, 인간의 영역과 구별되는 신의 영역의 조건, 인간이 신의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바로잡는 방식인 정화 의례 등이 분명히 나타난다. 신은 인간의 영역과 구별된 영역에 거하며, 신들 사이에 영역을 구별하기도 한다. 어떤 신이 다른 신에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선언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신과는 종종 영역을 구별한다. 신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서 영역을 구별하면 신을 모시는 마을이 갈라지기도 한다. 주민들의 신앙 대상과 생활권이 완전히 구별되는 경우에는 돼지고기 식성이 신들의 갈등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마을 주민들이 모시는 신들이 영역을 구별할 때는 대개 신의 돼지고기 식성 여부에 따라 위계가 정해진다. 돼지고기를 받지 않는 신은 마을 전체를 관장하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는 본향당

신으로, 마을 공동체 전체가 정기적인 곳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돼지고기를 받는 신은 대개 산육, 치병, 수렵, 풍어 등을 담당하며,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주민들의 일상과 더 가까운 신이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의 영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속성, 즉 부정과 관련된 행위를 특정 기간 동안 삼가야 하며 정화 의례로 부정을 씻어내야 한다. 인간들끼리 있을 때는 부정하지 않은 것도 신의 영역에서는 부정할 수 있다. 손에 난 상처나 그을음 냄새처럼 매우 일상적인 것도 신에게 부정할 수 있다. 돼지고기나 드물게는 소고기도 이를 싫어하는 신에게 갈 때는 부정의 원인이 된다. 성관계를 했다고 인간 영역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 영역에서는 부정하다. 신들은 특히 인간의 생명 및 죽음과 관련된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피, 출산, 성행위 모두 인간 생명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양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 토착종교에서는 죽음의 영역이 살아있는 인간 영역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은 강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것에 접촉한 채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인간의 시체는 물론, 신화 상에서나 거주 영역 면에서 인간과 가까운 동물들의 사체를 만지거나 보면 곳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제주 토착종교에서 신은 모두 인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우월한 존재이며 인간과 구별되는 영역에 거한다는 점에서 “성스러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스러움의 개념으로 인간과 구별되는 것은 정결과 부정으로 구별되는 것과는 다르다. 성과 속의 구별이 정결과 부정의 구별과는 다른 층위의 개념 범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의 영역 내에서도 어떤 신은 다른 신에게 부정할 수 있다. 정결과 부정은 영역 내의 상태와 조건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신의 영역에서 부정한 신도 자신의 영역 내에서는 정결하다. 제주 토착종교에서 신들 사이에 영역을 구별하는 모습은 성스러움의 범주가 정결 및 부정의 범주와는 다른 층위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성스러움이 양가적인 속성을 지녀서 성스러운 동시에 부정하다는 모호한 설명이나, 범속함과 구별되는 성스러움이 곧 부정과 구별되는 정결이라는 식의 이해는 모두 잘못되었다. 성스러운 신이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정결하지만 다른 신의 영역에서는 부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 적합한 조건을 지킨다면 인간의 영역에서 정결하지만 그 상태로 신의 영역과 접촉할 때는 부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신들의 영역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과 인간이 신의 영역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지켜온 규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제주도 토착 종교의 정결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구별된 영역들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죽음의 부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죽음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정결 개념을 통하여 구별해온 흔적은 남아 있다. 이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장례 문화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상복을 입기 전에 사돈집에서 썰어온 팔죽을 먹어 부정을 씻어낸다.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상가 앞에 물을 담은 대야를 배치하여 죽음의 부정을 씻도록 했는데, 상가의 물은 부정을 입었다고 해서 다른 집에서 물을 떠왔다. 제주도에서도 죽음이 발생한 집의 팔이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가져온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가에서 제공한 떡을 가족들에게 가져다 줄 때면 일부를 떼어 버림으로써 죽음에서 비롯된 부정을 없애야만 한다.⁵⁵⁾ 장사를 지낸 날 밤에 ‘귀양풀이’ 굿을 하여 죽은 영혼을 저승에 보내는 굿을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집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서 죽음의 영역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 토착종교에서 죽음의 영역에 대한 관념이 현재는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죽음의 영역의 속성과 조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고대 지중해 지역을 비롯한 많은 문화에서 하늘의 신이 소와 양 등을 받는 반면 명계와 지하의 신은 주로 돼지를 제물로 받는다. 명계의 신은 신의 영역에 속하면서 죽음의 영역에도 속해 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면서 부정의 요인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죽음의 영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장된 연구는 죽음의 영역은 물론 돼지고기 금기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돼지고기 부정은 연구자뿐 아니라 토착종교 전문인인 심방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김연희 심방은 돼지고기 부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돼지고기가 한편으로는 부정인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의문이 갈 때가 있다”고 했다. 김연희 심방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어떤 신은 돼지고기를 허용하고 어떤 신은 돼지고기를 금지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분향굿과 불도맞이, 일월맞이를 할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만, 시왕맞이, 귀양풀이, 성주풀이에서는 먹어도 된다는 것

55)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179.

을 예로 들었다. 신의 속성에 따라 영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돼지고기가 부정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떤 속성이 돼지고기를 먹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어야 한다. 본향신은 돼지고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높은 위계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본향신의 속성 중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요인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높은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로 돼지고기가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도맛이와 일월맛이는 불교의 영향 때문에 돼지고기를 금한다고 하더라도,⁵⁶⁾ 성주풀이에서 정하는 가택신은 왜 돼지고기를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다. 시왕맛이와 귀양풀이가 시왕과 차사 등 명계와 관련된 신에게 소원을 비는 의례라는 점이 돼지고기 허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제주 토착종교에서도 인간 집단의 영역들을 구별할 때 정결과 부정의 규칙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축을 죽이고 그 가축을 다루는 백정과 갓바치가 부정하게 여겨진 것은 죽음의 부정을 늘 다루는 계급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했던 것을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마을의 종이 부정한 존재로 구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1931년에 태어난 제주 무속 연구자 현용준은 자신이 어렸을 때 마을 공동의 종인 ‘하인’이 어린 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천민이었다고 회고한다. 현용준의 설명을 보면 그저 신분이 낮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영역이 구별되는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을에서 잔치날이 정해지면 “우선 하인에게 전하여” 일을 시키는데, 그들은 “변소의 돼지를 끌어내어 돼지의 목을 밧줄로 묶어” 죽였다. 잔치에 사용하는 돼지를 죽이는 백정의 일은 항상 하인이 했던 것이다. 하인이 일반 사람들의 집에 심부름을 갈 때면, “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외양간에 보릿짚과 명석을 깔아서 지내야 했다”고 한다.⁵⁷⁾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집에 머물 수 없었다는 것은 제주도에서도 백정의 일을 하는 마을 공동의 하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영역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정결 체계로 구별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앞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토착종교의 정결체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확장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먼저 제주도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의례들, 특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여러

56) 위의 각주 49 참조.

57)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135, 150.

단계의 ‘일생의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용준이 마을의 하인에 대하여 증언한 것과 같은 풍속과 생활상에 대한 기록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연구를 통해 제주도 토착종교에 참여해온 주민들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더 큰 설명의 틀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정결, 부정, 정화 의례, 제주도 토착종교, 돼지고기 부정, 본풀이, 굿, 심방

원고접수일: 2013년 9월 29일

심사완료일: 2013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



참고문헌

<국내서>

김동섭 · 문순덕 · 양영자,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김원영, 『수신영약(修身靈藥)』, 김영환 역,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1900], 757-799.

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서울: 보고사, 2006.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서울: 민속원, 2008.

문무병 · 양영자 · 김순이, 『제주신화집1』, 제주: 제주문화원, 2010.

유요한, 『종교적 인간, 상징적 인간』, 서울: 이학사, 2009.

이능화, 『조선무속고: 역사로 본 한국 무속』, 서영대 역주, 파주: 창비, 2008[1927].

이원진, 『역주 탐라지』, 김찬흡 외 역, 서울: 푸른역사, 2007[1653].

이형상, 『남환박물: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이상규 · 오창명 역주, 서울: 푸른역사, 2009[1704].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서울: 보고사, 2009.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교육자료 29호, 제주: 1976.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2005[1976].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제주: 각, 2007[1980].

———.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2002.

———.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파주: 집문당, 2005.

———.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2009.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한국구비문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12), 33~59.

김진영, 「제주도 당본풀이에 나타난 ‘뚝고기 부정’의 의미와 기능」, 『종교학연구』 26호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7), 149~166.

신혜숙 · 이경희, 「산욕기 여성의 경험: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

지』 4권 2호 (여성건강간호학회, 1998), 271~285.

유요한, 「제주 토착종교와 외래종교의 충돌과 질서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개종주의 비교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2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 1~36.

<국외서>

Douglas, Mary.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New York: Routledge, 2001(1966).

Durkheim, Émil.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Mineola, NY: Dover, 2008(1912).

Eliade, Mircea. *The Que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by Rosemary Sheed. New York: Sheed & Ward, 1958(1949).

———. *Ordeal by Labyrinth: Conversations with Claude-Henri Rocquet*. Trans. by Derek Colt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Kristensen, W. Brede. *The Meaning of Religion*. Trans. by John B. Carman.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0.

Milgrom, Jacob. *Leviticus 1-16*. New York: Doubleday, 1991.

Paden, William E. *Religious Worlds: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88.

Patton, Kimberley C. *The Sea Can Wash Away All Evi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Religion of the Gods: Ritual, Paradox, and Reflexiv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Smith, Jonathan Z.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Smith, Wilfred Cantwell.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1962).

———. “The Study of Religion and the Study of the Bible,” *JAAR* 39 (1971): 131–140.

Smith, William Robertson. *Religion of the Semit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2(1889).

Yoo, Yohan. “A Theory of P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igion.” Ph.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2005.



<Abstract>

Separation between the Realms of Gods and Separation of the Divine
Realm from the Human Realm: A Study of Purity Idea in the Indigenous
Religion of the Jeju Island

Yohan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Jeju-Do, South Korea, the indigenous religion is alive in that many indigenous people accept its myths as true and think its rituals to be effective. Adherents of the indigenous religion pay very careful attention to matters of purity and impur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deas of purity and impurity that appear in *Bon-pu-ri* and *Gut*. The idea of purity is generated when people separate multiple realms within a cosmological worldview and specify the conditions for each realm. Purity refers to the requisite conditions of each realm. These conditions are the attributes of a realm that people observe when they interpret their surroundings. Impurity, then, is the state of not satisfying the condition of one realm, often owing to the negative effects of other realms. Purification rituals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meet and maintain the necessary condition of a realm or in order to get rid of the influence of other realms.

In Jeju *Bon-pu-ri* and *Gut*, two basic types of confrontations between realms are clearly seen. First, there are separations of the realms between gods when they cannot coexist under the same condition of one realm. The chief god of a village community who is in charge of all lives of the people and the domain of the village often separates his or her realm from those of other gods, who are said to be impure to the chief god because they eat pork. The impure gods hold lower positions than the chief god and take roles that the chief god does not occupy. In this case, the chief god who does not eat pork and the lower god who eats pork stay in the same village and are served by the sam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when the people of Jeju believe that two gods have decided to separate their realms completely, they separate the domains of villages that they

take charge of. The communities that serve one god are also separated from communities serving the other god. In this case, the reason for the separation is not pork impurity. A god may divide his or her realm from that of another god when he or she is in conflict with the other god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he unfaithfulness or rudeness of the other god. When a god declares that the state in which he or she is with another god is “full of impurity,” the god is saying that he or she cannot stay with the other god any longer. When a god tries to enter another gods’ realm of which the requisite conditions are different from his or her own, the god has to perform a purification ritual to cleanse his or her realm’s influence that may cause impurity in the other god’s realm. Second, the divine realm is strictly separated from the human realm.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human realm can cause impurity in the divine realm. Before people enter shrines or before they invite the gods to the place of *Gut*, which is a temporarily separated divine realm within the human realm, people must abstain from the behaviors that may pollute the divine realm and they must purify any impurity that they have incurred unconsciously. Gods entering the human realm also should be purified through rituals in order to remove impurity from the human realm.

The confrontations among gods and between gods and humans differentiate clearly the system of purity and impurity from that of sacred and profane. Whether a god or a person is pure or impure is determined by the realm which the god or person occupies. While gods are always sacred to people, they may be impure in another god’s realm and an impure god in another god’s realm is nevertheless supposed to be pure in his or her own realm. People who are pure in their daily lives are impure when they enter a divine realm.

Key Words: purity, impurity, purification ritual, Jeju indigenous religion, pork impurity, *Bon-pu-ri*(Jeju myths), *Gut*(Korean indigenous rites for propitiating the gods), *Sim-bang*(Jeju shaman)